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전야미사 독서: 이수지, 박주원
 성탄절 독서: 홍효정, 박경홍
 전야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성탄절 복사: 신승원 로이
 전야미사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 바오로, 김지원 카린
 성탄절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최고은 소피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학부생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480
 봉헌금: \$237
 합 계: \$ 717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12월 30일, 1월 13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계시관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시 45분 성당친교실 (12월 24일, 1월 7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택 (1월 6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십사 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십사 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십사 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성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Facebook 그룹: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대림 제 4 주일]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2011년 12월 24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62, 1-5

<제 2 독서> 사도행전, 13, 16-17, 22-25

화답송

-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함차게 일어서나이다.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내일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 구세주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복음 1, 1-25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은 이사악을 낳고 이사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츨론을 낳았으며 헤츨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호손을 낳았으며 나호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았다. 오벧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나세를 낳고 므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즈루빠벨을 낳았다. 즈루빠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קים을 낳았으며 엘야קים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복음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98 봉헌: 101 성체: 99 파견: 102

<제 1 독서> 이사야서, 52, 7-10

<제 2 독서> 히브리서, 1, 1-6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를 비추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큰 빛이 땅 위에 내렸네.◎ 알렐루야.

복 음

요한복음 1, 1-18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육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오늘의 성가] 시작: 108 봉헌: 110 성체: 109 파견: 484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후에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2 시에 성탄절 미사가 있습니다.
- 31 일 토요일에는 미사가 없고, 1 월 1 일 오후 1 시에 미사 및 식사가 있습니다.
- 주일 학교는 다음 주 부터 3 주간 방학입니다. 1 월 21 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오늘의 묵상

오래 전에 한국에서 상영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벤자민이 여든 살 노인으로 태어나서 점차 젊어지더니 청년기, 청소년기, 유년기를 살다가 마침내 유아기에 이르러 생을 마치는, 인생을 거꾸로 산 사람의 생애를 묘사한 영화입니다. 발상이 재미있고 우리 인생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상영 후 사람들에게 영화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마치 시계가 거꾸로 가듯, 그대로 되밟아 가는 삶을 살아보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세가 든 노인마저도 아무리 점점 젊어지고 더 긴 세월을 살 수 있다 해도, 살아온 삶을 똑같이 거꾸로 되밟아 가는 것은 싫다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에서 좋았던 일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늙고 병들어 가도 살아온 길을 다시 똑같이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 안에 막연하지만 희망을 안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치 한 사람이 살아온 일생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 온 이름들을 서술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마침내 예수님에 이르러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끊임없이 희망하고 기다려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온 과거의 시간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경험한 과거보다 불투명하지만 미래를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희망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 살게 하는 희망과 그리움의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